‘민주 경선 파동’에 심상찮은 ‘텃밭 민심’

전략공천 역풍, 고무줄 경선에 곳곳 불복 ‘진흙탕’
촛불 집회·날선 성명전·탈당에 무소속 출마까지
“지지율이 불러온 오만, 2년 전 회초리 기억해야”

더불어민주당 경선 파동에 텃밭 광주·전남 민심이 심상치 않다.

‘중앙당 지원설’이 끊이질 않았던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들은 줄줄이 경선에서 탈락했고 기초단체장 공천을 둘러싸고는 불복과 성명전, 급기야 탈당에 무소속 출마까지 거친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

‘경선은 곧 본선,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집권 여당의 오만함이 2년 전 ‘호남 회초리’를 망각하게 하고 있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29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 민주당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중 잣대로 명분도, 민심도 모두 잃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한 편의 희극이었다”는 비아냥도 터져 나온다.

서구갑에는 직전 지역위원장인 박혜자 전 의원과 ‘386 운동권’ 출신 송갑석 노무현재단 광주운영위원이, 영암·무안·신안에서는 지역위원장 출신 서삼석 전 무안군수와 백재욱 전 청와대 행정관이 맞붙었다.

그러나 중앙당이 특정 후보를 지원한다는 정황은 곳곳에서 포착됐다. 여성 30% 할당과 당 기여도를 이유로 서구갑은 돌연 전략공천 카드가 제시됐다가 반대여론이 들끓자 마지 못해 포기했고, 결국 해프닝으로 끝난 대리투표 논란을 이유로 영암·무안·신안은 경선결과 발표가 석연찮게 보류되기도 했다.

경선룰은 180도 다른 기준이 적용됐다. 서구갑은 지역위원장 출신에게 유리한 100% 권리당원 투표로, 영암·무안·신안은 지역위원장보다는 ‘청와대 직함’이 먹힐 수 있는 100% 여론조사로 이중잣대를 들이댔다. “송갑석과 서삼석을 떨어트리기 위한 노골적인 페널티”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고, 박 전 의원과 백 전 행정관은 든든한 지원군에도 불구 고배를 마셨다.

기초단체장 경선도 혼탁과 혼란의 연속이다. 흑색선전, 비방은 기본이고 법적다툼으로까지 비화돼 진흙탕 경선으로 전락한 곳도 적지 않다. 광주에서는 서구, 북구, 광산에서 파열음이 일고, 전남에서는 신안과 목포 등지에서 파열음이 나왔다. “지지율에 취한 오만함”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일각에서는 무소속 약진을 예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광주 서구청장 경선에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던 현직 구청장이 ‘음주운전 2회 벌금형’으로 컷오프되면서 탈당을 결행,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나머지 후보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유력 주자의 ‘음주운전 벌금형 3회 전력’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날선 성명전이 이어지고 있다.

북구청장 경선에서는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터진 ‘여론조사 결함’ 논란으로 단일화 논의가 무산되고, 특정 후보와 여론조사 기관 간 법적 다툼, ‘동지에서 적’으로 변한 단일화 추진 후보간 감정의 골이 후유증으로 남아 있다.

광산구청장 경선에서는 컷오프된 4명 가운데 3명이나 재심을 신청해 1명이 구제된 가운데 유력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후보 단일화가 발표 하루 만에 번복되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 신안군수 경선에서는 추미애 대표 비서실 부실장을 지낸 천경배 예비후보가 느닷없이 전략공천 되면서 텃밭 주자였던 임흥빈 예비후보가 ‘낙하산 공천’에 반발,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목포시장 경선도 전략공천설이 나돌았으나, “바람만 믿는 오만한 결정이 계속된다면 역풍 맞을 것”이라는 여론의 경고음에 결국 백기투항, 뒤늦게 5월 초 경선이 실시될 예정이다.

법적 분쟁도 끊이질 않았다. 광주시장 경선을 두고는 선거인 명부나 다름 없는 권리당원 명부 유출사건에 대한 고소·고발이 잇따르면서 4개월째 관련 수사가 진행중이고, 전남지사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김영록 전 장관의 ‘ARS 음성 전송’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과 MB 구속, 동계올림픽, 미투 등 초대형 이슈에다 가뜩이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당원 중심의 ‘그들만의 경선’이 진행돼 유권자 입장에서는 ‘깜깜이 선거’ 그 자체인데 내부적으로 우왕좌왕에 무원칙, 불공정이 판을 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시민 박모(51)씨는 “2년 전, 총선에서 호남 참패 후 ‘뼈아픈 회초리를 맞겠다’고 말한 기억이 아직도 선명한데 당시의 진정성과 간절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 같아 실망”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북한, 30분 느린 평양시 대신 ‘서울표준시’ 통일

북한이 우리보다 30분 늦은 평양표준시를 버리고 서울표준시로 통일해 사용키로 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9일 춘추관에서 지난 27일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의 추가 합의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표준시보다 30분 늦은 평양표준시를 서울표준시에 맞추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당시 남북 정상 내외 간 환담에서 김 위원장은 평화의집 대기실에 시계가 2개 걸려 있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하나는 서울시간, 다른 하나는 평양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를 보니 매우 가슴 아팠다”며 “북과 남의 시간부터 통일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건 같은 표준시를 쓰던 우리 측이 바꾼 것이니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가겠다”며 “이를 대외적으로 발표해도 좋다”고 말했다.

뉴시스

“광주의 더 큰 변화를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이용섭 민주당 광주시장후보 · 문상필 북구청장 예비후보 ‘좋은정책’ 간담회

이용섭 민주당 광주시장후보와 문상필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29일 문상필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많은 지지자와 함께 정책간담회를 갖고 광주의 변화를 위해 함께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 후보는 “어려운 조건이지만 묵묵히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 오랫동안 준비를 철저히 한 사람이 단체장이 되어야한다. 그래야 구정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밝혔다.

문상필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이용섭 광주시장 후보가 선거사무실을 방문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 먼저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으로 평화의 봄이 오고 있는 지금 광주광역시와 북한과 협력할 사업이 있다. 광주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사업과 문화사업으로 북한과 교류한다면 성공가능성도 크고 의미도 깊다. 518의 완성은 통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주택 또한 광주시와 자치구가 함께 추진해 볼 사업이다. 광주역에 대한 광주시와 북구의 결단으로 새로운 광주역 시대를 함께 열고, 문화·관광·트램을 북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광주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이용섭 후보께 정중히 제안한다.” 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한반도가 천지개벽하고 있다. 대통령 한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광주시장, 구청장 한사람을 잘 뽑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개마고원서 캠핑하며 대동강 맥주를”

“개성 한옥마을을 가고 싶다” “기차나 자전거여행 소망”
“아름다운 비무장지대 하루 출입인원 정해 관광지화”
“평화 유지된다면 우리 아이들 군대 안 보내도 될 듯”

“이제 남한 ‘랭면집’은 옥류관과 경쟁하고, 카스·하이트는 대동강맥주와 경쟁하라.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너른 품으로 오라. 소비자들은 그대들을 배신하지 않는다 (트위터 아이디 Gree*******)”

‘2018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된 판문점 선언을 두고 시민들은 남북 평화협정에 따른 교류 확대와 통일에 대한 다양한 기대감들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7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하고 연내 종전을 선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다. 게다가 김 위원장이 북한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는 모습부터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손을 잡고 ‘깜짝 월경’을 하는 장면까지 생중계되자 시민들은 평화 협정과 통일 이후의 삶에 대해 구체적인 희망사항들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옥류관과 경쟁하는 남측 냉면집’ 등과 같이 ‘평화·통일’에 대한 기대가 어린 게시물들이 올라왔다.

트위터 아이디 spac******는 “개성의 한옥마을에 가보고 싶고, 자본주의의 때가 묻지 않은 북한 시골의 자연을 보고싶고, 러시아 인근 도시 정도는 쉽게 마음 먹고 기차여행하고 싶다”고 적었다.

아이디 meta********는 “개마고원 락 페스티벌, 아마 전설이 될 것이다. 락의 성지가 될 듯. 페이가 없다고 해도 다들 달려와서 공연해줄걸? 힙하잖아. 마지막 분단국가가 통일돼서 락 페스티벌 한다는데”라고 기대했다.

커뮤티니 MLBPARK 아이디 WA2***은 “비무장지대(DMZ)는 하루 통제인원을 정해서 관광지화 시켜야 된다고 봐요. 뉴질랜드 밀포드는 하루에 50명 출입 가능. 매우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제안했다.

페이스북에서는 열심히 몸을 만들어 개성까지 자전거로 왕복하고 싶다든가, 가족과 함께 개마고원에서 캠핑을 하며 대동강맥주도 한잔 하고 싶다는 류의 작은 소망들이 속속 게시되는 중이다.

“지난 주에 아들을 출산 했는데, 오늘 남북 회담을 보고 나니 제 아이는 군대를 보내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대로 평화가 쭈욱 유지된다면 징병제는 사라지고 모병제로 군대가 유지 되지 않을까요?(뽐뿌 누**)”, “진짜 통일되면 군대 안 갈 거라는 안일한 생각은 안 하는게 좋을텐데. 자대가 개마고원이나 백두산 천지 경계병 같은거 걸리면 3박4일 신병휴가 중에 2박 3일은 버스와 기차에서 보내게 될 것(트위터 i_lo**********)” 등과 같이 통일 이후 군대 생활에 대한 상상도 있었다.

다만 일각에서 ‘북한 부동산’에 대해 높은 관심을 드러내는 데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트위터 아이디 UBC**는 “종전되고 통일되면 많은 사람이 북한 땅 사고 건물 짓고 가게 열 거라고 말해서 좀 당황스럽다. 북한의 자원이 당연히 남한 사람의 것이 될 거라는 사고방식은 꺼림칙하고 불편하다”라고 밝혔다.

뉴시스